

1930년대 후기 신문 短評란의 유행과 문헌적 양상

이 해 년*

차 례

- | | |
|---------------------|------------------------|
| I. 연구목적 및 단평의 범주 | III. 단평란의 유행원인과 시대적 역할 |
| II. 단평란의 유행과 문헌적 양상 | IV. 결론 |

국문초록

단평은 1935~1940년 무렵까지, 4개 신문의 학예면과 문예종합지(신동아, 문학, 人文評論, 西海公論, 批判, 청색지 등)에 실렸는데, 『동아일보』의 「정찰기」 「사백자평론」, 『조선일보』의 「탐보대」 「소형논단」 『조선중앙일보』의 「필탄」 「미네르바-의 소총」, 『매일신보』의 「납량대」란 등 20개 이상의 단평란이 있었다. 편당 400~800자 정도의一回 단편물이 대부분이고, 2~3회 연재물도 많은데, 500여 편이 넘는다. 단평란의 필진은 저널리스트들로, 당시 문단에 영향력 있던 작가, 시인, 평론가들이었으므로, 文藝時評이 대부분이고 작품론, 작가론, 비평가론, 문학이론, 詩作法 등 전문적 비평이 많다. 단평은 당시의 文藝時評의 성격을 내용상으로

* 동서대학교 영상매스컴학부 영상문학전공 교수

계승한 것이며, 일본 신문단평을 형식상으로 수용하여 변모한 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평에는 時事性을 뛰어넘는 문학성(비평성)과 문학사적 가치가 내재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단평란을 문헌학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큰 특징은 匿名사용이 많다는 점이다. 신랄한 비평이 목적이었으나, 지나친 비난, 욕설로 인해, 記名비평이 많아졌다. 단평란 이름은 대부분 好戰的, 전투적이거나 戰爭機物의 이름이 많은데, 일제하 전쟁 당사국이나 다름없었던 당시의 조선의 위기 상황과 관련된다.

단평란의 유행 원인과 단평의 시대적 역할을 살펴볼 때, 문인들의 자기반성 의미로서, 장편비평의 논쟁성에 염증난 대중독자와의 융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비평가들의 양면적 노력, 곧 문학의 바른 이해를 위한 독자의 지도 계몽과 작품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작가, 비평가의 격려, 편달에서 연유한 것 같다. 또, 단평은 당시의 우리문단을 혼돈, 저급, 불안한 것으로 파악하여, 문단인이 항거하고 문단에 진출하여 이를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추후 단평의 비평문학으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밝히는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제어 : ‘단평(短評)’, 단평란의 유행, 문헌적 양상, 신문 학예면, 익명비평(匿名批評), 문예시평(文藝時評), 일본 신문단평, 대중독자, 조선문단 위기, 한국근대문학비평사.

I. 연구목적 및 단평의 범주

I-1. 신문 단평란 연구목적

단평은 1935년 무렵, 당시 4개 신문(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매일신보)의 학예면, 또는 당시의 문예종합지(신동아, 문학, 人文評

論, 西海公論, 批判, 청색지 등)에 실리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1940년 무렵까지 계속되었고, 그 분량은 편당 400자 내지 800자 정도로서 500여 편이 넘는다.

단평란의 필진은 주로 당시의 저널리스트들이 중심이 되었다. 이 저널리스트들은 다시 문단에 영향력 있던 작가, 시인, 평론가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단평에는 단순히 時事性에 머물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문학성(비평성)과 문학사적 가치가 내재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면의 연구업적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 면에 초점을 두고 1930년대 후기 신문 단평란을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단평란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문헌적 고찰

둘째, 단평란의 유행 원인과 시대적 역할

각 발표지마다 단평란의 양상은 조금씩 다르다. 이러한 특성과 양상들은 단평란 연구의 기본 자료에 해당하므로 첫째 경우의 탐색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또 문학은 시대적 산물이라는 측면에서 둘째 경우의 탐색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단평의 비평문학으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밝히는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과연 단평은 비평으로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문학이었던가를 따져 한국근대문학비평사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短評의 명칭과 범주

본 연구는 한국근대문학비평사 연구의 일환으로서, 단평¹⁾에 관한 연

1) 여기서 '단평'이라 함은 장르로서 단정된 명칭은 아니나 잠정적으로 이렇게 칭하기로 한다. 단평에 속할 수 있는 고려시대의 詩話, 詩評은 본 고의 연구 대상인 1930년대 후기 신문 단평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다른 특질을 가지고 있기

구로 집약하였다.

단평은 종래 ‘익명비평, 촌철평, 단평, 꼬짚, 촌평, 단평칼럼’ 등으로 불리워져 왔으나, 本考에서는 이런 여러 명칭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短評’을 택한다. 단평이란 명칭은 형태상 길이, 내용의 간결함, 거기에서 오는 효과의 명확성, 수사법상의 압축적 묘사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맨 처음 ‘단평’이라 칭한 사람은 윤고종²⁾이며, 寸鐵殺人이라는 문구처럼 數行의 簡潔한 문장을 가진 ‘短評’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고 했다. 이때 단평이란 명칭은 ‘독자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짧은 말’ ‘名句’라는 점에서 ‘촌철비평’³⁾의 의미를 포함하며 ‘짧다’는 의미에서 ‘寸評’⁴⁾ 또는 ‘콩비평’⁵⁾이란 명칭을 포함한다. ‘콩비평’은 일본에서 단평의 別名으로 쓰였던 명칭인데 ‘콩’은 ‘豆’로 ‘짧다, 작다’의 뜻이기 때문이다.

한편 ‘匿名批評’⁶⁾이란 명칭은 일본에서는 비평의 한 장르로 고정되어 나타나며, 우리나라에서는 ‘익명을 사용한 비평류’를 대략 지칭하는 말로 쓰여 왔다.

이러한 경우 ‘익명비평’이란 명칭은 다음 몇 가지 이유에서 단평의 명칭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익명 현상은 단지 당시의 단평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익명은 단평 이전 또는 이후에도 우리 문단 전체에 걸쳐 사용된 것이며, 號나 筆名⁷⁾을 사용하는 한문학적 전통과도 연결된다.

때문에, 본 考의 논의에서 제외시킨다. 또 당시 신문의 단평 형태는 동아일보에서만 해도 「동아만평」 「橫說豎說」(1면) 「휴지통」(2면) 등 여러 개의 단평란을 찾아볼 수 있지만, 문학과는 무관하므로 제외시킨다.

- 2) 윤고종, 「문예시평(2) ‘단평의 존재의의’- 시대는 간명을 요구한다」, 『조선일보』, 1935. 3. 9.
- 3)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서울: 일지사, 1980, 508~513쪽.
- 4) 복진, 「대체 누구냐」, 『조선중앙일보』, 「일평」란, 1935. 9. 27.
- 5) 윤고종, 앞의 글.
- 6) 노천명, 「익명비평 유행에 대하여」, 『조선중앙일보』, 「일평」란, 1935. 10. 16.
동유자, 「匿名비평의 위신」 『매일신보』, 「전초명」란, 1940. 9.27.

둘째, 익명은 단지 통렬한 비평정신을 위해 사용하였고, 그것은 방법상의 한 특성에 불과하므로 그 외의 나머지 특성을 포괄할 수 없다.

셋째, 단평 가운데 實名을 사용한 것도 많은데, 그것들을 포함할 수 없게 된다.

또 ‘寸鐵殺人’이란 명칭은 정순정⁸⁾이 처음 사용하였는데, 압축된 事象의 간략한 표현수법으로서 警句의 修辭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수사법상의 특징과 관련지어 칭한 것 같다.

그렇다면 촌철평론이라는 말은 수사법상의 한 특징에서 온 명칭에 불과하므로 단평이라는 비평의 명칭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다.

김윤식⁹⁾은 ‘촌철비평’이라 칭하였으면서도 계속 ‘단평’, ‘단평형식’ 등으로 계속 혼란되게 사용하였으며, 단평은 익명비평과는 달리 ‘촌철비평의 한 형태’라고 하면서, 촌철비평의 속성을 가진 모든 비평 중의 한 형태로서 1935년 이후의 ‘短評’을 포함시켰는데, 이때 ‘촌철비평’은 1935년 이후의 短評만을 지칭하는 명칭이 아니므로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위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이 시기의 독특한 비평장르의 명칭으로는 短評이 가장 적합하겠다. 이 명칭은 형태상의 짧은 길이와 내용의 간결함, 거기에서 오는 효과의 명확성, 수사법상의 압축적 묘사까지도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短評’이라 함은 1935~1940년 무렵 신문 학예면과 잡지를 중심으로 유행하던 한국근대문학비평사의 독특한 비평을 의미하게 된다.

7) 단평 유행 이전인 1921년 5월의 「비평과 시대적 양심」(『我聲』誌, 제12호)에도 ‘乙素天’이란 명칭이 보이고, 1924년 10월 「닛체의 警句」(『영대』_ 제3호)에는 ‘魔境’, 1924.10.6의 「향락문예와 전투문예」(『조선일보』)에는 ‘彗星生’이란 筆名이 각각 보이는 것이다. 이런 필명들은 단평란에 사용했던 匿名류와 잘 구별되지 않는다.

8) 정순정, 「寸鐵評 비판-효능성의 二方面」, 『조선중앙일보』, 1935.10.15~16.

9) 김윤식, 앞의 책, 515쪽.

II. 단평란의 유행과 문헌적 양상

1935~1940년 사이의 4개 신문 학예면에 나타난 단평을 정리하여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향을 알 수 있다.¹⁰⁾

II-1. 신문 단평란의 문헌적 양상

1935년 무렵부터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매일신보』 등 각 신문은 학예면에 단평란을 만들어 단평을 연재하였는데, 단평은 당시 문단의 주요 비평가, 시인, 소설가로 구성된 신문, 잡지의 편집인, 기자들에 의해 쓰여 졌다.

단평은 저널리스트에 의해 쓰여 짐으로 해서 문예 비평이지만 時事性까지 띠게 되고, 신문이라는 독특한 대중매체가 가진 제한 때문에 400자 내지 800字 가량의 짧은 비평 형태로 등장하였다.

II-1-(1). 『동아일보』의 단평란

① 「偵察機」

우리 문단에서 최초로 단평란이 설치된 것은 『동아일보』의 「정찰기」란이다.

10) 이 논문의 기본 단평 자료로는

- 『동아일보 마이크로 필름』, (서울 동아일보 조사부판: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 『조선일보(학예면)』, (37.7~40.8): 한국학자료원, 1985
- 『영인 조선일보(학예면)』, (권 4, 5, 6), (1934.7~1937.6).
- 『조선중앙일보(학예면)』, (권 3, 4, 5), (1934.12~1936.9).
- 『매일신보』의 단평란과 『동아일보』의 「낙서평론」란은 김윤식, 『한국 근대 문예 비평사 연구』 제2장 1절춘철비평, 510~513쪽(이하, 김윤식, 510~513쪽으로 略)을 택하였으며, 단평란에 기록한 편수는 이 기본 자료만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들 자료 중 특기할 것은 『조선일보』의 「탐보대」와 「예원포스트」 「소형논단」 「소형월평」 「화요평론」 「수대」, 『조선중앙일보』의 「미네르바」의 小鏡란 등은 필자에 의해 새로 조사된 것임.

「정찰기」는 1935년 1월 1일 元日¹¹⁾에 ‘조선의 학술과학 기타 제반의 문학 영역에 恒하여’ ‘정찰하는 목적’으로 출발하였다.¹²⁾

그러나 1935년 4월 3일 ‘인돌’의 「劇場에서 쫓겨난 演劇」까지 계속되다가 약 두 달 가량 「정찰기」란이 쉬게 된다.

다시 1935년 5월 28일에는 알파, 베타, 오메가 공동으로 「偵察機의 再出發」을 알리는데 ‘정찰기가 한동안 날지 않은’ 것은 ‘시기를 관망하기 위한 대기 중의 휴식’이었고, 백 배 원기를 더하고 ‘망원경, 촌철彈, 機笑劑’ 등 제 설비를 갖추고 ‘低空, 高空을 翔破’ 하도록 ‘기상과 지리의 연구도 충분히’하여 ‘문화 戰野를 향하여’ 재출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사회의 公器’로서의 기능,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공정과 냉정을 기할 것을 약속하는 데서는 당시 단평란의 출발의식 및 목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 중요성을 가진다.

그 후로는 1935년 11월 3일 「작품 번역의 필요」까지 꾸준히 계속되는데, 총 157편¹³⁾으로 알파, 베타, 오메가, 갑돌이, 순돌이 등이 주요 필자이다.

② 「落書評論」

36년에 신설되어 36년 11월 5일까지 계속된 것¹⁴⁾으로 안함광, 현민 등이 필자이다.

익명비평에서 署名비평으로 바뀐 특징이 있다.

③ 「四百字評論」

「낙서평론」이후에 백립 올림픽 대회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동아일보』가 1936년 8월 27일~1937년 6월 5일까지 강제 폐간 당하였으므로 거의 1년간 단평이 없다가, 1938년 1월 13일, 안함광의 「테마와 성격창조와의 관계」로 시작되어 한 달 만인

11) 김윤식, 앞의 책, 511쪽, 예는 ‘35년 7월’로 되어 있으므로 정정함.

12) 「정찰기의 출발에 際하여」, 『동아일보』, 「정찰기」란, 1935. 1. 1.

13) 『동아일보 색인』 권6, 「정찰기」, 동아일보사, 1979, 1065쪽.

14) 김윤식, 앞의 책, 511쪽.

38년 1월 25일 신석정의 「時 아닌 詩」로 끝나는데 7편 밖에 보이지 않는다.

④ 「啄木鳥」

1938년 3월 4일 쌍두마차의 「익명비평의 변」으로 시작되어 38년 5월 22일 尖口子の 「文靑 語義解」¹⁵⁾로 끝나는 총 23편의 비평이 있다.

「啄木鳥」라는 단평란 명칭이나 「尖口子」라는 필자명도 날카롭게 찌르는 「警句」의 의미를 보여주며, 단평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雙頭馬車」가 처음 등장하여, 이 난을 주도했다는 의미가 있다.

焚書生, 三足鳥, 南樹魂 등 특이한 익명의 필자가 나타나서 다른 단평에서 보기 어려운 문학이론 등 전문적인 단평을 펼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⑤ 「胡椒譚」

「호초담」은 1939년 5월 10일 정지용의 「의복일가견」으로 시작하여 39년 6월 30일 현민의 「早老와 大成」까지 16편의 단평을 낳았다.

김남천, 현민, 최재서¹⁶⁾ 등이 주요 필자이다.

「호초담」이라는 단평란 이름은 아주 따끔하게 찌르는 「警句批評」을 의미하는 것 같다.

以上으로 동아일보의 단평란을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정찰기」라는 이름으로 단평란을 가장 먼저 설치하고 39년까지 꾸준히 계속하였으며, 쌍두마차(최재서), 현민, 알파, 빼타, 오메가 등 전문적 단평가를 배출해 내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시기에 있어서 단평란 명칭이 자주 바뀐 것은 단평란의 명칭으로서 적당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적당한 것을 찾는 모색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편집자 또는 담당자

15) 김윤식, 앞의 책 511쪽에는 3월 27일까지만 계속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류이다. 또 같은 책 같은 곳의 3월 8일 「문단 패시미즘」이라 한 것을 「문단과 패니미즘」으로, 익명 가운데 「念書生」을 「焚書生」으로 바로 잡는다.

16) 김윤식, 앞의 책, 511쪽에서는 최재서 「世代와 작가」(5월 12일)를 「時代와 작가」로 오기하였으므로 정정함

등이 바뀔에 따라 명칭마저도 바뀐 게 아닌가 한다. 이것은 다른 신문에 서도 마찬가지다.

II-1-(2) 『조선일보』의 단평란

① 「探報隊(台); (探照燈)」¹⁷⁾

「탐보대」란은 처음에 「探報隊」로 「雙眼子」의 「비평의 근본태도」(35년 2월 15일)을 쓴 후 단평란 명을 바꿔 35년 4월 28일까지 2편을 더 연재한다.

35년 5월 3일에는 다시 단평란 명을 「探照燈」으로 바꿔 「一步生」이 「동요에 대한 우견」을 발표하지만 단 1회에 그치고, 다시 35년 5월 4일부터 「探報台」로 바꾸고 「작가가 가질 領分」을 발표하여 35년 8월 31일 「如水」가 쓴 「파리의 국제문화옹호연맹」까지 13편이 연재된다.

「탐보대」라는 이름은 ‘살펴서 알리는 곳’이란 뜻으로 동아일보의 「정찰기」란의 명칭 및 목적과 닮아 있다.

② 「藝苑포스트」

「탐보대」와 병행하여 시작된 단평란으로, 「탐보대」란 전문적 필자에 의해 쓰여지지 않고, 「大邱 星影」 「吉州 朴南松」 등으로 地名을 붙여 이름을 밝힌 독자가 문단 전체에 대해 지적하고 바라는 내용으로 연재된 단평란이다.

『조선일보』 「탐보대」보다 5일 먼저 인 35년 2월 3일에 「無名作家를 돌보시오」를 시작으로 6편 계속되었다가 끝난다.

전문적 필자 또는 고정적인 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은 전문적 문학이론 보다는 문단 전체에 대한 요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다른 단평에 비해 논리 전개도 빠지지 않는다. 이것은 투고된 것들 중에서 가려 뽑은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17) 필자의 새 조사 자료.

③ 「小型論壇」

35년 8월 31일 「탐보대」란이 끝난 뒤로 단평란이 없다가 37년 3월 13일 「如水子」의 「독선주의와 문단」으로 시작하여 「모랄」 語義解(37년 4월 10일, 如水子)까지 12편이 실린다.

필자는 「탐보대」에 주필을 잡던 「如水」가 「如水子」로 개명되고, 「탐보대」가 다시 「소형논단」으로 바뀌는 일과, 『조선일보』 단평란을 주도하였던 「石耕牛」가 「소형논단」에서 단평 필자로 처음 등장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¹⁸⁾

④ 「鍊金機」

『조선일보』 단평란 중 가장 수준 높은 단평을 산출한 란은 바로 「鍊金機」이다. 편수도 『조선일보』 단평란 중 최다 편수인 99편을 연재하였으며 「三色童, 柏木兒, 巴朋生, 五星子, 石耕牛, 獨角生, 尙壽施」 등 전문적인 단평가가 이 단평란을 통해 등장하고 있는 것도 주목되는 일이다.

1937년 7월 14일¹⁹⁾에 「三色童」의 「원칙론과 方法論」이라는 것을 필두로 1937년 12월 23일²⁰⁾ 石耕牛의 「知識人の 노스탈지」까지 계속된다.

⑤ 「고기도(Cogito)」

「연금기」에 이어 1938년 1월 15일부터는 「고기도(Cogito)」라는 이름으로 柏木兒의 「批評의 位置」가 시작된다.

새로운 단평가로 「鐵木塔²¹⁾, 潛天夫, 夢駒生」 등이 등장하며 「柏木兒,

18) 김윤식은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에서 「소형논단」이라는 단평란 이름을 쓰지 않고 「石耕牛」의 「적수공권시대」(1937년 3월 13일)을 소개하고 있다. 또 3월 13일을 3월 23일로 오기하여 바로 잡는다.

19) 김윤식, 앞의 책, 512쪽에서 1937년 8월 18일 석경우의 「放恣性」부터 「연금기」의 명칭이 보인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7월 14일이 옳다. 또 같은 페이지 가운데 柏木兒의 「풍자문학론」(7월 22일), 巴朋生の 「비평의 기준」(7월 23일), 五星子の 「新人과 霸氣」(7월 31일)는 「연금기」란의 단평임을 밝히고, 필자도 「如水」 「嘲風生」은 「소형논단」의 필자이며, 「尙壽施」 「鶴首里」는 「연금기」의 필자임을 밝힌다.

20) 김윤식, 앞의 책, 512쪽에서 12월 3일까지 쓰였다고 한 것을, 필자는 23일로 바로 잡음.

21) 김윤식, 앞의 책, 512쪽의 柏木兒의 「月評是非」(1월 28일)이라고 한 것을 鐵木塔

鐵木塔, 石耕牛, 巴朋生' 등의 단평작가들이 자주 보인다.

총 40편을 연재한 이 난은 「연금기」, 「참마록」과 더불어 『조선일보』 단평란의 중추역할을 한 란이며 1938년 4월 12일 「莫難易」의 「批評教師」로 끝난다.

⑥ 「小型月評」

이제까지는 주로 日評으로 연재되다가 1939년 2월부터는 月評 형식의 단평이 시작된다. 「小型月評」란이 그것인데 매 月評당 5회의 단평이 쓰여 졌으며 그것도 2, 3, 4 月만 계속되다가 그친다.

2月 창작평은 李源朝의 「作風の 差異」(39년 2월 26일), 「現代의 哀愁」(39년 2월 28일)등이 연재되었으며, 3, 4月 창작평은 安懷南의 「新人의 두 작품」(39년 4월 6일), 「敗北者의 무덤」(39년 4월 12일)이 연재되기도 하였다.

월평이 단평형태로 쓰여 진 특이한 난이라는 점이 주목되며 당시에 그만큼 단평란이 유행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⑦ 「烽燧台」

39년 4월 13일 林和의 「現代의 魅力」을 시작으로 문학 뿐 아니라 언어학, 과학 등 문화제반에 걸쳐 1940년 2월 3일 金汝植의 「原始裁判과 反座法」에까지 계속된 것으로 전 31편 중 문학에 관한 단평은 10여 편 밖에 없다.

문화 전반에 걸친 것이므로 필자도 1회 1명씩 각각 다르며 이름을 밝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중 문학자로서 林和, 朴致祐, 方鍾玄, 朴泰遠, 盧子泳, 金南天, 金起林 등의 이름이 보인다.

⑧ 「斬馬錄」

문화 전반에 걸친 단평으로 「烽燧台」가 계속되는 동안 1939년 8월 5일부터는 순문학에 관한 수준급 단평란이 마련되는데 「斬馬錄」이 그것이다.

의 「月評의 是非」로 바로 잡는다.

1939년 8월 5일 「看板과 批評」²²⁾을 시작으로 ‘孔明’이 혼자서 1939년 12월 22일 「文章道德論」까지 11편을 연재해 나간다.

⑨ 「火曜評論」

「烽燧台」와 마찬가지로 문화 전반에 걸친 단평란이나, 비교적 문학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룬다.

단평란 이름에서 보듯이 매주 화요일마다 실린 단평란이라는 것이 「小型月評」과 더불어 특이한 점이다.

1940년 1월 16일 李軒求의 「미켈란젤로의 敎訓」을 시작으로 1940년 5월 7일 李源朝의 「文化的 責任感」에까지 12회 동안 계속된다.

당시로서는 전문적 비평가이던 李軒求, 林和, 崔載瑞, 金起林, 李源朝 등이 집필함으로써 단평의 내용은 보다 전문성을 띠게 된다.

이상으로 『조선일보』의 단평란들을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조선일보』가 『동아일보』와 당시의 쌍벽을 이루던 신문이었던 때문인지, 『동아일보』의 「정찰기」에 견줄만한 단평란을 설치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探報台」란의 설치 날짜나 變名 과정에서 드러나며, 또 「예원포스트」 「소형월평」 「화요일평」의 연재방법에서도 드러난다.

「연금기」 「고기도」 「참마록」 등은 전문적 단평가를 탄생시킨 수준급 단평란이었다는 점과 1940년 5월 3일까지 단평란을 꾸준히 계속해 나간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II-1-(3). 『조선중앙일보』의 단평란

① 「筆彈」

『조선중앙일보』에서 『조선중앙일보』의 「정찰기」, 『조선일보』의 「탐보대」란에 이어 1935년 5월 31일²³⁾에 설치한 것이 「필탄」이다.

22) 김윤식, 앞의 책, 513쪽에서는 「비평론의 대두」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간판과 비평」으로 바로 잡는다.

23) 김윤식, 앞의 책, 510쪽에서는 「필탄」이 35년 6월 4일부터 ‘X, Y’에 의해 나타난다고 되어 있으므로 바로 잡는다.

「정찰기」란이 ‘저공비행을 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탐색’하고²⁴⁾ 「탐보대」란이 역시 구체적 탐색을 하여 알리는 구실을 하려고 출발한 것처럼, 「필탄」은 ‘문단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事象을 捕捉하여’ ‘正攻을 取하며’ 혹은 背護를 수행하라는 意圖에서 생겨난 것²⁵⁾으로 밝히고 있다.

필자는 주로 P.W, P.M, X.Y.Z, K.H 등 외국어 철자를 사용한 익명을 쓰고 있으며, 35년 6월 27일, 28일, 29일까지 연재한 雙樹台人の 「朝鮮的 批評精神」을 끝으로 전 15편이 발표된다.²⁶⁾

② 「미네르바」의 小銃

1935년 7월 2일에 필자를 밝히지 않고 실은 「學藝學建設의 任務」부터는 「미네르바」의 小銃」란이 시작된다.

이어 巴朋의 「死와 時」(35년 7월 4일), 역시 巴朋의 「틀게네프와 英語 教師」(35년 7월 28일)의 두 편이 실린 다음 전 3편으로 끝나지만 후에 『조선일보』의 1937년 「연금기」란, 1938년 「고기도」란에서 활약하게 되는 ‘巴朋生’²⁷⁾이 「미네르바」의 小銃」란에 처음 등장한 점에 주목이 된다.

24) 「정찰기의 출발에 際하여」, 『조선중앙일보』 「정찰기」란, 1935. 1.1.

25) P.W., 『조선중앙일보』 「필탄」란, 1935. 5. 31.

26) 김윤식, 앞의 책, 510쪽에는 6월 4일~6월 20일까지의 단평이 모두 ‘X.Y.Z’의 글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 중 35년 6월 6일의 「적료한 女流文壇」은 ‘P.W’의 글로, 6월 7일의 「作家의 早老症」과 6월 13일 「苦憫의 文學에서 躍進의 文學으로」, 6월 20일 「우리 藝術確立에 邁進하자」 이상 3편은 ‘K.H’ 글로 바로 잡는다. 또 6일 ‘P.W.’ 「적료한 女流文壇」의 「적료」가 「료료」로 오기되어 있고, 8일의 「찌-널리즘의 功過」가 6일 「저널리즘의 功過」로 오기되어 있으며, 13일 ‘K.H’의 「苦憫의 文學에서 躍進의 文學으로」에서 ‘에로」가 ‘으로」로 오기되어 있으므로 각각 바로잡는다.

27) 필자가 ‘巴朋」과 ‘巴朋生」을 같은 필자로 본 것은 단평 필자들의 익명 양상을 살펴본 결과 흔히 같은 필자가 한 번 사용한 익명을 조금씩 變名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 「탐보대」의 「如水」를 「如水子」 또는 「如水生」으로, 『조선일보』 「연금기」에서는 「독(?)角生」을 「獨角生」으로 쓰기도 하고, 「又夢」을 「又夢人」으로 표시하기도 하였으며, 『조선중앙일보』의 「필탄」에서 「K.H」를 「K.H生」으로 고쳐서 쓰기도 한 것을 볼 수 있다.

③ 「日評」

「미네르바」의 小銃」에 이어 1935년 9월 18일 ‘로갑’의 「못 본체 못할 사실」²⁸⁾부터 李海文의 「詩評의 缺如」까지 약 1년간 총 78편의 단평을 산출한 란이다.

「論戰과 匿名」(복진, 35년 9월 22일), 「大體 누구냐」(복진, 35년 9월 27일), 「匿名批評의 流行에 對하여」 9천명, 35년 10월 16일) 등에서 보듯이 「정찰기」란 등의 匿名으로 실리는 단평을 비판하는 의미에서 匿名(記名)²⁹⁾으로 바꾸어 「日評」란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35년 10월 27일까지 ‘로갑, 복진, 천명’ 3인이 주로 이끌어 가다가 36년 2월 9일부터는 漢字로 이름 석 자를 완전히 밝힌다.

조선중앙일보의 단평란의 중추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로갑(朴魯甲), 복진(金復鎭), 천명(盧天命)의 주요 필자 세 사람과 北影生(張北影), 李鳳九, 李園友, 朴貴松, 朴勝極 등의 문예이론, 문단점검 등에 관한 비교적 수준 높은 비평이 이때 나타나고 있다.

이상 『조선일보』의 단평란을 살펴 본 바에 의하면, 「筆彈」이나 「미네르바」의 小銃」란이 다 같이 날카롭게 공격하는 성격의 단평을 목적으로 匿名으로 출발하였으나, 「日評」에 와서는 記名함으로써, 『동아일보』의 「정찰기」, 『조선일보』의 「탐보대」란과 같이 그때까지 익명을 사용하던 비평가들의 결함을 비판하고, 정면대결을 하였다는 점은 비평계의 활력을 위해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또 박로갑, 김복진, 노천명 등 수준급 비평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꾸준히 계속되었다는 점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의 단평란들과 다르고, 이것은 다시 단평의 질적 향상을 의미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28) 김윤식, 앞의 책, 511쪽에는 「일평」란이 金復鎭의 「啓蒙과 弄談」(35년 10월 3일)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으므로 바로 잡는다.

29) 김윤식, 앞의 책, 511쪽은 ‘필명을 밝힌 것이 많다고 하였는데 「日評」란은 전체가 두 자 또는 석 자로 이름을 밝힌 「記名批評」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II-1-(4). 『매일신보』의 단평란

김윤식³⁰⁾에 따르면 『매일신보』에서는 단평란이 1935년 8월과 9월에 「納涼台」, 「閑是非」란으로 각각 마련되었다가 폐지되고, 1935년 10월 1일에서 1940년 2월 사이에는 단평란이 보이지 않는다.

1940년 2월에 가서야 비교적 전문 단평란인 「反射鏡」란과 문화 전반에 걸친 느낌을 주는 「演藝週題」란이 동시에 마련되어 똑같이 두 달 가량 계속되고, 이어서 1940년 5월에는 「前哨兵」란이 마련되어 40년 10월 까지 계속된다.

이처럼 『매일신보』의 단평란이 다른 신문의 단평란이 폐지된³¹⁾ 40년 에 가서야 뒤늦게 설치된 것은 김윤식의 의견처럼 ‘新體制를 앞둔 文壇 新秩序에 중점’³²⁾을 둔 때문으로 보인다.

II-1-(5). 문예종합지의 단평란(1935~1939)³³⁾

- 『新東亞』: 「문단팔면경」, 「잠수정」(48. 49. 50호), 「시사단평」(40. 48. 49. 50호).
- 『文學』: 「雙眼鏡」
- 『人文評論』: 「求理知喝」
- 『西海公論』: 「文壇三行論」³⁴⁾
- 『詩學』: 「메가폰」, 「直言版」, 「寸語集」, 「頂針」
- 『批判』: 「문단시시비비론」(66호), 「문단폭격기」(66호), 「文壇寸針」

30) 김윤식, 앞의 책, 513~514쪽.

31) 『조선중앙일보』의 「日評」은 1936년도에 이미 끝났고, 『동아일보』의 「호초담」은 1939년 6월 30일에 끝났으며, 1940년까지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조선일보』의 「화요평론」도 1940년 5월 7일에는 완전히 끝나고 없던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2) 김윤식, 앞의 책, 514쪽

33) 문예종합지의 단평란에 대해서는, 자료만 제시하고 추후 논문에서 연구할 예정이다.

34) 김윤식, 앞의 책, 514쪽에는 「文壇三行語」로 오기되어 있어 바로 잡는다.

· 『청색지』: 1. 5. 6호

위 자료에서 보듯이, 당시의 주요 문예잡지에 단평란이 빠지지 않고 많이 마련된 것으로 보아, 당시에 단평란의 비중이 크고 단평을 통한 비평활동이 상당히 활발하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다. 물론 활발했던 만큼 단평에 거는 기대 또한 컸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II-2. 단평란의 다양한 면모

지금까지 1935~1940년 사이의 4개 신문 단평란을 문헌학적 측면에서 정리하여 살핀 결과, 다음과 같이 단평란의 다양한 면모를 살필 수 있었다.

II-2-(1). 단평란 이름의 특징

단평란의 명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好戰的, 전투적 특성을 지니거나 戰爭機物의 이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의 「정찰기」나 『조선일보』의 「探報臺」(探報台, 探照燈), 「烽燧台」란, 『조선중앙일보』의 「筆彈」, 「미네르바」의 小銃」란, 『매일신보』의 「反射鏡」, 「前哨兵」란의 이름은 확실히 전쟁기물이거나 전쟁수단이거나 전쟁과 관련된 명칭들이다.

이들은 모두 어떤 事象을 탐지하여 알리는 구실을 하거나 어떤 사실에 대해 따끔하고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는 意味를 가진 이름들이다.

또 옹고 그름을 가려 따지거나 날카롭게 비판을 가하여 독자들에게 통쾌함, 시원함을 안겨준다는 의미를 가진 이름들이 많은데, 『동아일보』의 「啄木鳥」, 「胡椒譚」, 『조선일보』의 「斬馬錄」, 『조선중앙일보』의 「納涼台」, 「閑是非」란에서 볼 수 있다.

이런 현상들은 신문 短評란에서 뿐만 아니라 문예종합잡지의 단평란에서도 볼 수 있다. 『신동아』의 「文壇八面鏡」, 「잠수정」란, 『文學』의 「雙眼鏡」란, 『시학』의 「메가폰」란, 『비판』의 「문단폭격기」란 등은 다 전쟁과 관련되거나 戰爭機物들의 명칭들이고, 『시학』의 「直言版」, 「寸語集」,

「頂針」, 『비판』의 「文壇是是非非論」, 「文壇寸針」란 등도 옳고 그름을 가려 날카로운 비판을 한다는 의미를 가진 명칭들이었다.

이와 같이 評論 가운데 유독 단평란 명칭만이 호전적이고 날카롭게 찌르는 성격을 가진 것은 당시의 世界的 시대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 전기는 세계경제공황의 심화와 제국주의의 세력확대로 정치 위기가 심화되어 세계 각국의 문단에는 不安思潮가 형성될 때였다. 독일 나치즘과 이탈리아 파시즘의 세력확대가 심화되는데다가, 1933년 독일,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 34년 2월 파리 대폭동 등이 일어나자, 知識人들은 1935년에 ‘文明을 지키고 야만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지적협력 국제협의회」를 여는 등, 行動主義 사조가 형성된다.

그러나 프랑스 인민전선운동에 뒤이어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는 등 제 2차 세계대전을 향한 위기는 점점 고조될 뿐이었다.

이 땅에서의 1930년대 전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확장 시기였으며 1930년대 후기에는 대동아침략전쟁이 노골화되고 조선도 이 전쟁의 조력자로서 나설 것을 억압받던 시기였다. 1931년 9월 滿洲事變에 이어 1933년 국제연맹을 탈퇴한 일본은 1937년에는 中日戰爭을 일으킴으로써 독일과 함께 세계를 2차 대전으로 몰아간다. 1938년에는 침략전쟁의 협력으로 지원병제도가 실시되고 內鮮同祖論 등이 날조되는 등 일본의 속국으로서의 조선의 위기와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전쟁의 불안 위기에 항상 시달림으로써 전쟁 당사자와 다름없었던 조선에서는 전쟁과 관련된 時事物이 많고, 전쟁用語가 많이 쓰여지며, 대중의 意識 또한 전쟁과 관련된 것으로 쏠리는 것이 時代潮流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이런 상황 하에서, 날카롭게 비판을 가하는 意味를 띤 단평란 명칭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자연히 전쟁기물이나 好戰的인 성격의 명칭이 설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전쟁당사국이었던 日本에서 유행했던 단평란 명칭도 「豆戰盤」(『東朝新聞』), 「大波小波」(『都新聞』) 등으로 전쟁기물이나 호전적 명칭이었다.

이렇게 볼 때, 당시는 조선이나 일본이나 전쟁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었던 시기이므로 시대조류를 따라 전쟁기물이나 호전적 성격의 명칭이 단평의 명칭에까지 확대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II-2-(2). 短評의 내용상 주된 경향

단평의 내용을 편수로 계산하여 분류해 보면 첫째, 文藝時評, 時論이 가장 주된 내용이다. 문단실태나 행사 제도에 대한 비판, 비평가와 작가가 가져야 할 자세나 교양 문제, 문인으로서의 자질 문제, 수양 문제 등을 운위하고, 선배 문인이나 新進 문인에 대한 경계, 출판사의 폐해나 작가의 濫作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다음으로 作品論, 作家論, 批評家論 등의 비평류가 많고 문예학, 詩作法 등 전문적인 文學理論이 많다.

이런 현상은 당시 비평가들의 다음과 같은 兩面的 노력에서 연유한 것 같다. 곧 당시 단평을 담당했던 작가들이 문단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은 한편으로는 독자들에게 문학의 바른 이해를 위한 지도와 계몽을 계속해야 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작품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격려와 편달을 또한 계속해야 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독자의 다량 확보와 독자의 반응의 건전한 육성을 포함하며, 후자의 경우는 창작에 대한 새로운 안목과 문단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측면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II-2-(3). 단평 掲載의 형식상 경향

단평의 게재형식은 1회 단편물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신문이 주는 제한적 상황, 즉 읽기에 간단해야 독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상황이 신문지면의 협소성과 결부되어 자연스럽게 취해진 일반적인 형식이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몇 회에 나누어 연재된 것도 더러 있다. 『동아일보』 「정찰기」란에 실렸던 ‘오메가’의 「고전 전승의 방법」(上, 下)(1935.

7. 26~27), 『조선중앙일보』의 「日評」란에 실렸던 ‘朴貴松’의 「金文輯氏의 斷言」(上, 下)(1936. 2. 24~ 15), ‘朴勝極’의 「勞動者便에 서는 作家들」(上, 下)(1936. 4. 9~10) 등이 그 예이고, 『조선일보』의 「小型月評」란은 매달 5회에 걸쳐서 각각 다른 내용을 연재했던 단평란이다.

특기할 것은 한 편의 단평에 匿名者가 여럿인 것도 더러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偵察機의 再出發」(알파, 빼타, 오메가, 1935. 5. 28), 「索隱行怪의 批判, 偵察機에 대한 批判의 批判」(上, 中, 下)(알파, 오메가, 1935. 9.10~12), 「匿名에 對한 無用의 好奇心」(알파, 빼타, 오메가, 1935. 9.29) 등이다.

이 형식은 주로 「정찰기」란에서 볼 수 있는데, 「정찰기」란에 대한 비판이 심해지자 집필자였던 ‘알파, 빼타, 오메가’들이 그 대책을 강구하고 의논하여 쓴 때문으로 보인다. 그 대책은 편견에 치우친 독단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인 비평적 안목을 가지자는 뜻으로 보여 진다. 이것은 비평을 가하는 독자들에게 대한 自求策이기도 하였다. 또한 이 경향은 「정찰기」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단평란에까지 확대되기도 하였으니 당시엔 단평에 대한 반응도가 컸다고도 할 수 있겠고 또 나아가서는 단평을 기술하는 데에 상당히 고심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II-2-(4). 匿名사용에 대하여

① 익명 사용과 그 원인

1935년도 후기 단평들의 커다란 특징 중 하나는 필자가 匿名을 사용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 1935년 초에는 『동아일보』의 「정찰기」란, 『조선일보』의 「탐보대」란, 『조선중앙일보』의 「필탄」란, 『매일신보』의 「납량대」와 「한시비」란 등이 전부 匿名으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署名(記名)한 단평란이 많아지는 데 그 이유는 익명을 사용한 비평의 결함이 많이 드러나고 문단에서의 비판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예 처음부터 署名批評³⁵⁾으로 출발한 단평란도 많아지는데 1936년도 『동아일보』의 「낙서평론」란과 「사백자평론」란, 1939년도 「호초

담」란과, 『조선일보』의 「소형월평」, 「봉수대」, 「화요평론」란, 1935년 후기 『조선일보』의 「일평」란과 1940년도 『매일신보』의 「반사경」, 「연예주제」란이 그것이다.

匿名批評을 했던 단평수에 비하면 署名批評의 양은 많지 않으나 ‘익명 비평의 폐해’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익명비평의 폐해에 대하여, 특히 「정찰기」란에 대하여, 정면대결로서 署名으로 출발하고 論戰을 벌인 것은 『조선중앙일보』의 「日評」이다.

「論戰과 匿名」(「日評」, 1935년 9월 22일)에서 ‘복진’은 「정찰기」의 단평을 ‘匿名에 숨어서 하는 책임 없는 弄談’, ‘匿名에 숨어 人事의 細末을 들추거나 그러치 않으면 權威를 빌어 論證을 糊塗하거나 하는 태도’, ‘異常한 署名과 무시무시한 무기의 일흔을 題目한 特種의 X를 가지고 직업적으로 論戰(?)을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악평했다.

「... 近來에 「類似論戰」이 있기도 하나 人身攻擊이 아니면 「匿名」에 숨어서 責任없는 弄談에 지나지 안흔 것이 만타. 다가티 學問을 조와하고 眞理를 探究하는 學徒일진대 問題의 核心을 붓잡어 是非를 論議할 것이니 「匿名」에 숨어 人事의 細末을 들추거나 그러치 안흐면 權威를 빌어 論證을 糊塗하거나 하는 態度를 서로히 버리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雜誌 等の 「꼬십」은 暫問 不問에 부치고서라도 其外 發表機關에 異常한 匿名과 무시무시한 武器의 일흔을 題目한 特種의 欄을 가지고 職業的으로 論戰(?)을 專門하는 것은 나는 決코 取하지 안는다...

복진은 계속해서 「大體 누구냐」(1935년 9월 27일), 「귀한 것은 行爲이다」(1935년 9월 29일), 「啓蒙과 ‘弄談」(1935년 10월 3일)에서 匿名 또는

35) 여기서 ‘匿名批評, 署名批評’이라 함은 당시 단평란에서 또는 신문 학예면에서 ‘익명 또는 서명을 사용한 비평’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용어를 편의상 빌어 쓴 것이다.

變名을 사용하지 말고 正面에서 本名을 알리라고 「정찰기」란에 촉구한다.

「... 나는 決코 偵察機 等々の 무서운 近代的 武器라든지 「알파」 「오메가」 等々の 窮理 기쁜 變名이라던가, 「戰法」 「軍法會議」가튼 知識의 「啓蒙」도 願치 안코 오로지 「偵察機」가 그다지도 努力하는 文藝家協會의 그 후의 行衛를 알고 시뻐고 말하고 시뻐든 것 뿐이다.

우리는 弄談을 자랑 말고 問題를 解決하기로 하자. 흐리멍텅한 結果는 「偵察機」亦是 그다지 조와 할 바 아닐 것이며 變名에 숨어서 弄談을 거듭하면 그 累가 貴重한 東亞日報 學藝部에 直射의으로 맞칠 것이라는 것만 말하야 둔다.」³⁶⁾

여기에 대해 35년 9월 29일자 「익명 비평의 무용의 호기심」에서 알파, 베타, 오메가가 공동으로 정찰기는 경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자기의 소재와 활동을 피정찰자에게 알리지 않음이 有效하다고 발표한 후로, 「정찰기」란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자, 정찰기의 匿名論者들을 ‘辱說을 하는 險口家’ 들이라고 本格的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1935년 10월 6일자 ‘천명’의 글이다.³⁷⁾

匿名비평에 대한 공격이 여기에 까지 이른 것을 보면 익명을 씌우며 해서 생기는 당시의 문단상황이 어떠한지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다.

익명사용에 대해 이처럼 비판을 받으면서도 대부분 단평란들이 계속해서 익명을 사용하였던 원인을 살펴보자.

첫째, 익명의 사용은 필자의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비평의 객관성을 얻고, 신랄한 비평을 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동아일보』 「탁모조」란 1938.3.4. 雙頭馬車의 「匿名批評의 辨」을 보면 익명 비평이 ‘비평의 객관성’을 취득할 수 있는 까닭을 밝히고 있다. 곧 署名

36) 복진, 「계몽과 농담」, 『조선중앙일보』 「일평」란, 1935. 10. 3.

37) 천명, 「匿名批評의 流行에 對하여」, 『조선중앙일보』 「일평」란, 1935. 10. 16.

한 記名비평이 더 권위가 있지만 ‘그 권위래야 실상은 비평의 객관성을 해치는 XX공평의 정신을 몰각한 아첨과 필자의 「판」의식의 반영’ 등에 불과하며, ‘진정한 권위는 그 비평가가 일반독자의 의사와 요구를 대표’한 성격인 때, 즉 ‘평가의 객관성’에 있으므로, 실로 익명비평이 어떤 記名비평보다 쉽게 그 객관성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데, 그 이유는 ‘이름도 없는 놈이 아첨도 독자의 XX도 명예도 필요치 않고 단지 제 恣意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익명비평은 익명할 개인 그 배후에 숨어 毒舌을弄하기 위한 형식이 아니라 비평자의 개인적 차이를 도외시한 일반성의 입장에 서는 비평의 理想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의 「정찰기」란에서는 익명사용의 원인을 ‘피정찰자의 소임과 행동을 정찰하는 飛機로서의 정찰기가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재와 활동을 피정찰자에게 알리지 않음이 有效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³⁸⁾ 즉 그렇게 함으로써 익명비평 특유의 戲文的 표현력, 통렬한 비평정신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랄한 비평정신은 일본 『동경신문』의 「大波小波」란 등처럼, 일본의 익명비평이 가지고 있던 장점이었으므로 당시의 우리문단에서도 이 점을 이용하려 했던 것처럼 보인다.

둘째 원인으로서는 집필자의 부족시 동일 필자가 여러 개의 익명으로 동시에 기고할 수 있는 利點을 들 수 있다. 당시에는 문단을 주도한 비평가가 신문사의 편집인과 기자직을 겸하고 있고 문필가 수는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제한된 인원의 필자가 동시에 여러 편의 원고를 같은 신문이나 잡지에 실으려고 할 때는 편의상 익명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대표적 문필가로는 단평의 전문가였던 ‘石耕牛’ ‘柏木兒’ 등을 들 수 있다.

38) 알파, 베타, 오메가, 「익명비평에 대한 無用의 호기심」, 『동아일보』 「정찰기」란, 1935. 9. 29.

김윤식이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513쪽에 언급한 것처럼, 최재서의 號가 ‘石耕牛, 鶴首里, 常壽施’라고 할 때, 최재서는 『조선일보』의 편집인으로 활약하던 1938년 9월 중순경 ‘石耕牛’라는 익명으로 「鍊金機」란을 집필하면서 또한 署名으로 「詩와 도덕과 生活」 등의 평론도 집필하였다.

또 같은 「鍊金機」란에 ‘柏木兒’라는 匿名을 쓰던 李源朝도 그 당시 「9월 창작평(1) 단편 소설의 옹호」등을 연재하였다.

이렇듯 당시 문단에서는 신문이나 잡지사의 편집인과 기자가 필자를 겸한 일은 허다하였고, 이런 실정이 匿名사용을 더 필요하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익명 선택의 특징

익명 선택의 방법에서 가장 간단한 것이 외국어의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동아일보』의 「정찰기」가 처음에 이러한 ‘알파, 베타, 오메가, 잎실론, 감마, 테타’ 등의 익명을 보인다. 또 『조선중앙일보』의 「筆彈」은 ‘P.M, K.H, X.Y.Z’ 등 외국어 철자로 약어를 취한다.

그러나 익명을 선택한 단평란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漢字를 사용한 號와 같이 여겨지는 익명의 선택이다. 즉 XX子, XX生, XX兒 등과 같이 단평 유행 이전부터 내려오는 漢文學的 전통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如水子, 石耕牛, 嘲風’ 등 주로 소박한 생활이나 자연과의 교감을 보여주는 이름이 많다. 또 이 가운데는 아주 위압적이고 무서운 느낌을 주는 이름이 많은 것도 특징인데, ‘三足鳥, 兩頭蛇, 鐵木塔’ 등이 그것이다. 이렇듯 漢字로 된 匿名이나 號의 사용은 문단전체에 걸쳐 단평란 유행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 사용된다.

또 토속적인 이름을 사용한 경우도 많은데, 『동아일보』 「정찰기」의 ‘갑돌이, 순돌이, 길돌이, 복돌이’ 등에서 볼 수 있고 『조선일보』의 「고기도」의 ‘丕伊, 莫難易」에서도 보인다.

이것은 단평의 취지 자체가 ‘平民의 비평’으로서 비평가가 ‘일반 독자

의 의사와 要求를 대표'하여³⁹⁾ 비평하려는 데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런 평범한 이름의 사용은 '일반대중과 학우들의 거리를 좁혀 융화'⁴⁰⁾시키려 하였던 단평란의 출발 의도에 부합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Ⅲ. 단평란의 유행원인과 시대적 역할

Ⅲ-1. 文藝時評의 계승과 日本 新聞短評의 영향

우리나라에서 단평란이 등장하게 된 근본 이유로는 당시까지 지속되던 文藝時評과 일본신문 短評을 들 수 있다. 短評은 내용상으로 文藝時評을 계승한 것이며, 형태상으로는 일본 短評의 영향을 입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문예시평은 時感, 隨感, 雜感, 時事感 등으로 표기되어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 명칭이 文藝時評이다. 문예시평은 文壇, 作家, 作品, 時代感의 동향 따위를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전개하는 對話형식의 광장이다. 따라서 가장 직접적이며 즉흥적 요소가 배제되지 않았고 論爭의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月評이나 總評에 비하면 양적으로도 많고, 분량, 대상에도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형식이 바로 문예시평이었던 것이다.

문체는 평이함이 원칙이었으며, 문단이나 문학을 향한 발언이면 무엇이든 時評의 이름이 붙을 수 있었던 것이 당시의 사정이었다.

문예시감을 쓰는 자는 序頭에 자기의 文藝觀을 펼쳐 보임이 일반적이어서, 집필자의 문예관을 알 수 있게 한다.

39) 쌍두마차, 「익명비평의 辨」, 『동아일보』 「탁목조」란, 1938. 3. 4.

40) 윤고종, 「문예시평(2), '단평의 존재의의'- 시대는 간명을 요구한다」, 『조선중앙일보』, 1935. 3. 9.

이러한 時評은 또 티보테⁴¹⁾가 말하는 ‘公衆의 書記’ 혹은 ‘民衆批評’이기도 하지만, 그 기능은 ① 독자를 지도 대변하는 일면과 ② 職業的 비평으로서 작가를 지도하는 專門職 비평의 일면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⁴²⁾

프로 비평 이후 당시 문단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비평들, 즉 작가론, 작품론, 비평가론, 文藝學, 作法論時 등이 이러한 시평적 성격을 띠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본고에서 다루려는 단평 또한 內的 性格상 시평의 성격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즉, ① 文壇, 作家, 作品, 時代感의 동향을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전개하였던 점, 따라서 時事性이 강하고 論爭의 형식으로 선용되었던 점 ② 집필자의 文藝觀을 알 수 있는 점. ③ 民衆批評으로 독자를 지도대변하고, 전문직 비평으로 작가를 지도하였던 점 등에서이다. 물론 단평은 時評에 비해 형식이 짧기 때문에 단평만의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시평도 시평만의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제적 측면에서 살필 때, 이 두 형태의 내용은 거의 닮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단평이 일본단평과 때를 같이하여 유행하였지만, 우리 문단의 단평이, 내용상으로 일본신문의 단평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1935년경부터 등장하였던 단평은, 내용상으로 볼 때,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時評⁴³⁾의 성격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듯 당시의 우리 문단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지속되어 오던 시평이 단평이라는 짧은 형태로 변모한 이유는 일본신문의 단평형태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41) A.Thibaudet, 石川 湧 譯, 『Physiologie de la Critique』, 春秋社, 1930, pp.25~27.

42) 김윤식, 앞의 책, 525~526쪽을 요약.

43) ‘時評’이라는 용어는 1924년에 벌써 보이기 시작한다. 주요한이 『『조선문단』1호(1924. 10)에 쓴 『문단시평-그늘에 앉아서』등을 들 수 있다. (권영민, 『한국현대 문학비평사』 中 ‘자료목록’, 단대출판부, 1981. 11. 4).

일본신문의 단평은 ‘匿名批評’ 또는 ‘콩비평’이라는 이름으로 문학상의 한 형태로서 고착되어 나타난다. 일본에서 유행했던 익명비평⁴⁴⁾이란 권력자나 권위자에 대한 비판, 풍자의 落首, 타락한 문학에 연결되는 비평의 형식으로서 문단과 저널리즘에 성행했던 것이었다. 익명비평은 실명을 밝히지 않는 비난, 야유, 조소의 문장과 署名비평에 반대되는 戲文的 표현력, 통렬한 비판정신에 의해서 성립될 수 있으나, 私憤을 품고 남을 斬하는 폐해가 있었다.

일본신문의 단평란인 「豆戰盤」(『東朝新聞』), 「壁新聞」(『讀賣新聞』), 「大波小波」(『都新聞』) 등이 그것이며, 중견작가가 익명을 사용하여 신문학예면에 집필하였는데, 문단동향, 작가의 행동, 작품의 검토, 이론의 검토, 학계의 학설까지 기탄없이 통평하였는데, 짧은 길이를 취하는 형식상의 제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문단에서 짧은 길이를 가진 단평 형태가 유행을 하자, 일본 문단의 무비판적 수용이 난무하던 당시의 우리 문단에서도 그 형태상의 특이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짧은 형식이 수반하는 비평문학으로서의 강점을 취하여 우리 문단에서 실험하려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단평은 시평이 담당하던 내용들을 400자~800자의 짧은 형태에 담아 시도하였던 특이한 비평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직접적인 자극이 된 것은 일본 단평의 유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윤고종도 이 점에 대해

「…… 朝鮮에 日本内地의 短評과 가튼 批評形式이 전과함을 단순한 模倣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日本内地의 短評에 자극 바더서 出現한 것만은 確言할 수 있는 것이다. ……」

라고 함으로써 조선문단에서의 단평의 출현이 일본 단평에 지극 받아

44) 武田勝彦, 川端香男里 감수, 『基本文藝用語辭典』, 荒竹出版, 소화 55년(1980) 5월 20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언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단평은 내용상으로 볼 때는 단평 등장 이전의 문예시평의 계승이지만, 그 형식상의 변모는 일본 단평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 가지 유의하여 둘 것은 일본에서 단평이 유행하는 근본계기로 ① 사회동향이 반동에 직면하여 모든 행동의 자유성이 박탈된 것, 즉 구체적인 언동의 자유가 없고, 기성사회 문화가 미온적 정체를 거듭한 것 ② 사회 문화의 上滯무변화에 염증이 난 일반대중의 심리가 말기사회 특유의 폭로를 즐기게 된 것을 들었다. ①, ②의 원인이 결합하여 ㉠ 미온하고 타협적인 장편비평(아카데미한 비평)에 만족하지 않고, ㉡ 장황한 문장에서 보다는 간단한 문장의 예봉에서(점잖은 문학과 학자들의 약점이 통째될 때) 생활에 바쁜 일반대중들이 통쾌한 환호를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⁴⁵⁾이다.

윤고종이 든 일본단평의 유행원인과 그 결과적 현상을 살펴볼 때, 이러한 원인과 그 결과적 현상은 당시의 우리 문단의 실정도 유사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의 속국으로서 일본과 거의 같은 긴장감과 위기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 문단에서의 단평의 유행원인 ①,②항은 우리 문단에서도 작용하였고 결과적으로 ㉠, ㉡의 현상을 가져왔다고도 할 수 있다.

단지 단평이 유행하였던 원인 ①,②를 익명사용의 여부와 결부시켜 볼 때는, 일본 문단의 실정과 우리 문단의 실정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우리 문단에서 단평의 필자들이 익명을 사용함으로써 원인②, 즉 통렬한 비평정신(마음 놓고 비평하려는 의도)을 노출시키기는 했지만, 일본처럼 우리나라의 대중들이 우리 사회자체 내에서 상체 무변화에 염증을 느끼고, 폭로를 즐기게 됨으로써 그 수단으로 익명을 채택하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5) 윤고종, 앞의 글.

단지, 우리 문단에서는 일본단평의 형식에 자극받고 그 형식상의 특징을 수용하였는데, 그 중의 한 형식으로서 ‘익명’을 사용하였고, 익명의 장점(즉,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렬한 비평정신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려 하였으므로 그 결과로서 ㉠현상, 즉 통렬한 비평정신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III-2. 대중독자와의 거리단축 및 문인들의 자기반성

단평은 일반 독자와 전문학자 간의 거리를 좁히고 융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정순정은 ‘춘철평’을 ‘학구(學究)와 일반 대중의 감수성(교육정도의 차이에서 오는 것)의 거리를 단축, 융합하려는 노력의 소산’⁴⁶⁾이라고 하였다.

① 학문상 체계적, 자립적 사고를 가진 學究에게 자기 학문에 대해 요약적인 재인식, 재미, 재반성 등의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효용과 ② 학문상 비체계적 비자립적 사고를 가진 일반에게 名句的인 감명을 줌으로써 두뇌에 영원한 금자탑을 이루게 하는 효용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춘철평이라는 것이다. 학구와 대중 두 방면에 동시에 효용을 살리는 것이 지극히 어려우므로 압축된 事象의 입체적 묘사를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이 점은 윤고종⁴⁷⁾이 ‘너무 장황하고 아카데미한 논문에 싫증이 나서 일반대중은 간결한 문장의 예봉에 통쾌함을 느낀다’고 한 것과 연결된다. 이 점은 단평 유행 이전에 우리 문단에서 독자가 프로비평 등 전문적인 비평에 한 차례 염증을 느꼈던 상황과도 연결된다.

김윤식이 ‘춘철비평은 상품화된 저널리즘이 고안해 낸 형식’⁴⁸⁾이라 한 것의 저변에도 ‘저널리즘과 대중일반, 독자’와의 관련성을 함축한 것으로

46) 정순정, 앞의 글.

47) 윤고종, 앞의 글.

48) 김윤식, 앞의 책, 516쪽.

보인다.

단평이 근본적으로 상품화된 저널리즘에 의해 1935년경 갑자기 생겨났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으나⁴⁹⁾ 저널리즘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만큼, 단평에서 상업주의의 일면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단평이 신문이라는 상업성을 띠는 저널리즘으로서의 제한된 상황 - 즉 간단한 것이 읽기 쉽고, 빠르게 전달되며 독자로서의 일반대중의 수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상황- 과 적절하게 부합되는 비평이었다는 사실이고, 신문들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단평란 설치를 서둘렀던 것인데, 당시 4개 신문 모두에 빠지지 않고 단평란이 설치되었던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評文의 짧은 길이와 使用語句 등의 명확성에서 오는 예리함은 독자 일반대중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큰 利點이었을 것이다. 또 단평은 일반 독자의 의사와 요구를 대표하여 공평하게 평가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쌍두마차가 쓴 「익명비평의 변」에도 잘 나타나 있다.

「…… 익명비평은 위선 平民의 비평이다. 여긴 단지 신문 시사만한 권위(?)가 있으면 그만이다. …… 그러나 記名비평의 진정한 권위는 그 비평가가 일반 독자의 의사와 요구를 대표한 성격인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 익명비평은 실로 어떤 기명비평보다도 용이히 이 객관성을 취득할 수 있는데 특징이 있다. …… 그러므로 익명비평은 익명할 개인 그 배후에 숨어 毒舌을 弄하기 위한 형식이 아니라 비평자의 개인적 차이를 도외시한 一般성의 입장에 선 것을 표명하여야는 데의 理想이 있다. ……」⁵⁰⁾ (밑줄 필자)

즉, 匿名비평은 ‘平民의 비평’이므로 ‘일반성의 입장에 서서 일반 독자

49) 본고에서 살폈듯이, ‘단평’은 당시의 문단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지속되어 오던 ‘시평’이, 일본문단의 단평유행에 자극받아 그 형태만을 모방하여 조선문단의 특유한 ‘단평’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기 때문이다.

50) 쌍두마차, 「익명비평의 辯」, 『동아일보』 「탁목조」란, 1938. 3. 4.

의 의사와 요구를 대표'하려는 것이 「탁목조」란의 출발 의의이며, 익명 사용의 고유한 意義였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문인들의 자기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단평이 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으니, 그것은 박귀송의 「꼬십의 別意義」⁵¹⁾에 잘 나타나고 있다. 즉, 꼬십(또는 단평)은 독자에게는 문인의 '내놓지 않은 일면'을 내놓아 거리를 좁히고, 문인 자신도 꼬십(또는 단평)으로 하여 부주의성, 불명확성, 왜곡된 점을 알고 고칠 수 있다고 하였던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III-3. 문단의 위기와 극복

단평은 또 당시의 1930년대의 문단을 혼돈, 저급, 불안한 것으로 파악하여, 문단인이 이에 항거하고 진출하려는 시도로 불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단평의 의의를 다룬 대부분의 비평이나 단평란의 출발의의를 밝힌 글에는 모두 이 점이 나타난다. 1935년 5월 31일 『조선중앙일보』 「필탄」에는 시작의의를 다음처럼 밝혔다.

「…… 가장 정당한 예술은 그 시대의 역사적 발전의 선도적 시사와 적극적 기여가 있는 바, 현하 조선문단은 혼돈, 저급, 불안의 표정임으로, 문단인에게 부여된 과제는 암담한 타류에 抗하여 과감한 진출을 하려는 것 …… 이런 의미에서 문단에서 야기되는 여러 事象을 보족하여 「까십」 「넌센스」 「유우머」를 섞어 正攻 혹은 背護하려는 의도에서 생긴 것이 「필탄」……」⁵²⁾

「정찰기」의 출발 목적도 조선문단의 행방을 찾아 지시하기 위함이었다.

51) 『조선일보』 「일평」란, 1936. 3. 20

여기서 박귀송이 '꼬십'이라 한 것은 잡지의 꼬십과 신문 단평을 한꺼번에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단평'을 '文壇裏面事' 또는 '꼬십'으로 오해한 경우는 당시에 많았기 때문이다.

52) P.W., 『조선중앙일보』 「필탄」란, 1935. 5. 31.

「……정찰기는 그 명칭이 표시한 바와 같이 정찰하는 것이 그 목적이 다. 동료인 전투기와 폭격기같이 직접으로 적과 전투하거나 폭격하지는 않는다. …… 정찰의 임무를 맡고 야유와 풍우를 무릎쓰고 적지를 향하여 출발한다. …… 조선의 학술, 과학, 기타 제반의 문화 영역에 宜하여야 …… 이것은 금일의 출발에 제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저공비행을 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탐색하기로 선언하였다. ……」⁵³⁾

「정찰기의 재출발」에 나타난 「정찰기」란의 출발목적도 「사회 公器로서의 책임」⁵⁴⁾을 다하기 위해서였다.

윤고종⁵⁵⁾도 단평은 「비평무용론」이 성행하는 조선문단에서 더욱 더 진격성을 띠어야 하며, 육설도 그 근처에 조선문단의 현재를 근본적으로 갱생시킬 의도가 있는 육설이면 괜찮고,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단평이 조선에서 존재의의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당시 비평의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단평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이상에서 살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단평란의 문헌학적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양상을 살필 수 있었다.

첫째, 1935년 무렵부터 당시의 4개 주요 신문에는 단평란이 마련되어 1940년까지 많은 단평을 산출해 내는데, 『동아일보』의 「정찰기」 「낙서평론」 「사백자평론」 「탁목조」 「호초담」란, 『조선일보』의 「탐보대」 「소형논단」 「연금기」 「고기도」 「소형월평」 「봉수대」 「참마록」 「화요평론」

53) 「정찰기의 출발에 際하여」, 『동아일보』 「정찰기」란, 1935. 1. 1.

54) 알파, 베타, 오메가, 「정찰기의 再出發」, 『동아일보』 「정찰기」란, 1935. 5. 28.

55) 윤고종, 앞의 글

란, 『조선중앙일보』의 「필탄」, 「미네르바-의 소총」, 「일평」란, 『매일신보』의 「납량대」, 「한시비」, 「반사경」, 「연예주제」, 「전초병」란 등이 있었다.

둘째, 단평의 필자에 대해 살펴 볼 때, 가장 큰 특징은 匿名을 사용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 익명은 주로 외국어 철자를 하용하거나 漢字 號式의 명칭, 또는 토속적인 것을 사용하였다. 익명은 필자의 비밀을 보장하여 비평의 객관성을 얻고, 신랄한 비평을 할 수 있다는 목적에서 사용되었으나, 지나친 비난, 욕설 사용 등 문제를 일으키자, 記名비평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단평란 이름의 특징을 살펴 볼 때, 대부분 好戰的, 전투적이거나 戰爭機物의 이름이 많다. 이 점은 일본의 단평란 이름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속국으로서 전쟁 당사국이나 다름없었던 당시의 조선에서 위기와 불안이 고조되던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다. 당시는 당연히 전쟁과 관련된 時事物이 많고 전쟁용어가 쓰여 졌으며 대중의 의식 자체가 전쟁과 관련되는 쪽으로 쏠렸을 것이므로 여기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넷째, 단평의 가장 주된 내용은 文藝時評류이고, 다음으로는 작품론, 작가론, 비평가론, 문학이론, 詩作法 등 전문적 비평이 많다. 이런 현상은 당시 비평가들의 양면적 노력, 곧 문학의 바른 이해를 위한 독자들의 지도 계몽과 작품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작가, 비평가의 격려, 편달에서 연유한 것 같다.

다섯째, 단평은 신문이라는 讀物의 제한된 상황과 관련하여 一回 단편물이 대부분이고, 2~3회 연재물도 많다.

2. 단평란이 유행하게 된 원인과 단평의 시대적 역할을 고찰하였을 때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단평은 당시까지 지속되어 오던 文藝時評의 성격을 내용상으로 계승한 것이며, 당시 일본문단에서 유행하였던 일본 신문단평을 형식상

으로 수용하여 변모한 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단평형식이 유행하게 된 것은 말기사회의 폭로를 즐기려는 대중의 통렬한 비평정신과 연관시킬 수 있는데, 당시의 우리나라는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므로, 우리 문단에서 단평이 유행하게 된 것도 일본과 유사한 환경적 조건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단평은 이전의 장편비평이 지니는 논쟁성에 염증이 난 대중독자와 문인 간의 거리를 좁히고 융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문인들의 자기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단평은 당시의 우리문단을 혼돈, 저급, 불안한 것으로 파악하여, 문단인이 이에 항거하고 또 문단에 진출하여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단평의 비평문학으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밝히는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단평은, 짧은 길이에서 오는 선입견으로 지금까지는 도외시되어 왔고 본격비평에 비해 낮은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긴 시간동안 많은 양의 단평작품을 산출한 비평이고, 문학사적 의의와 가치가 충분한 비평장르임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단평은 비평으로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문학이었던가를 따져 한국근대문학비평사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러할 때만 식민지 상황하의 우리 문학에 대한 바른 이해와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동아일보**』단평란: 「偵察機」, 「落書評論」, 「四百字評論」, 「啄木鳥」, 「胡椒譚」(1935.1.1~1939.6.30)

: 『동아일보 마이크로 필름』(서울 동아일보 조사부판: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 『동아일보 색인』권6(「偵察機」목록) 1065쪽

『**조선일보**』단평란: 「探報隊(台); (探照燈)」, 「藝苑포스트」, 「小型論壇」, 「鍊金機」, 「고기도(Cogito)」, 「小型月評」, 「烽燧台」, 「斬馬錄」, 「火曜評論」(1935.2.8~1940.5.7)

: 『影印 朝鮮日報(학예면)抄』권4,5,6 (1934.7~1937.6)

: 『조선일보(학예면)』(1937.7~1940.8): 한국학자료원판, 1985

『**조선중앙일보**』단평란: 「筆彈」, 「미네르바-의 小銃」, 「日評」(1935.5.31~1936.4.24)

: 『조선중앙일보(학예면)』, (권 3, 4, 5), (1934.12~1936.9)

『**매일신보**』단평란: 「納涼台」, 「閑是非」, 「演藝週題」, 「前哨兵」(1935.8.6~1940.10.19)

: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서울: 일지사, 1980, 508~513쪽.

문예종합지의 단평란(1935~1939)

『新東亞』: 「문단팔면경」, 「잠수정」(48. 49. 50호), 「시사단평」(40. 48. 49. 50호).

『文學』: 「雙眼鏡」

『人文評論』: 「求理知喝」

『西海公論』: 「文壇三行論」

『詩學』: 「메가폰」, 「直言版」, 「寸語集」, 「頂針」

『批判』: 「문단시시비비론」(66호), 「문단폭격기」(66호), 「文壇寸針」

『청색지』: 1. 5. 6호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비평사(자료목록)』, 서울: 단대출판부, 1981.

2. 논저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서울: 일지사, 1980, 508~516쪽.

A.Thibaudet, 石川 湧 譯, 『Physiologie de la Critique』, 春秋社, 1930, 25~27쪽.

武田勝彦, 川端香男里 監수, 『基本文藝用語辭典』, 일본: 荒竹出版, 소화 55년 5월 20일.

윤고종, 「문예시평(2) ‘단평의 존재의의’- 시대는 간명을 요구한다」, 『조선일보』, 1935. 3. 9.

정순정, 「寸鐵評 비판-효능성의 二方面」, 『조선중앙일보』, 1935.10.15~16.

김복진, 「대체 누구냐」, 『조선중앙일보』, 「일평」란, 1935. 9. 27.

_____, 「계몽과 농담」, 『조선중앙일보』, 「일평」란, 1935. 10. 3.

노천명, 「匿名批評의 流行에 對하여」, 『조선중앙일보』, 「일평」란, 1935. 10. 16.

「정찰기의 출발에 際하여」, 『조선중앙일보』, 「정찰기」란, 1935. 1. 1.

알파, 베타, 오메가, 「정찰기의 再出發」, 『동아일보』, 「정찰기」란, 1935. 5. 28.

_____, 「익명비평에 대한 無用의 호기심」, 『동아일보』, 「정찰기」란, 1935. 9. 29.

쌍두마차, 「익명비평의 辨」, 『동아일보』, 「탁목조」란, 1938. 3. 4.

동유자, 「匿名비평의 위신」, 『매일신보』, 「전초병」란, 1940. 9. 27.

<Abstract>

A Study on the Popularity and
Bibliographical Aspects of ‘Danpyung’(Short
Reviews) in Journals in the Late 1930s

Lee, Hae-N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Danpyung’ (short reviews) put in the journal literary columns from 1935 to 1940, as a link of the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literary criticism.

The authors of ‘Danpyung’ are mostly journalists, who are also novelists and critics having an effect on the literary world at that time. Therefore, ‘Danpyung’ has a great possibility of possessing the literariness(or criticality) and literary historical value.

In this paper, ‘Danpyung’ is studied in two aspects, first, the bibliographical consideration, second, the historical background for its valuation in the history of literary criticism.

1. The bibliographical consideration of ‘Danpyung’ :

‘Danpyung’ columns, such as “Chungchalgi”, “Tagmokjo”, “Hochodam”, “Yungeumgi”, “Cogito”, “Piltan”, are given continuously. These have been recorded in four journals of these days since around 1935.

As a result of that, a lot of ‘Danpyung’ are produced until 1940.

The authors of ‘Danpyung’ do not write their names mostly, and the titles of ‘Danpyung’ column are greatly belligerent, fighting and

* Dongseo University

instrumental names used in war.

In the contents of ‘Danpyung’, its chief trend is about ‘comments on current literature’, ‘comments on current events’ about the literary world, essays on special works, authors, critics, and the theory of literature.

2.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Danpyung’s popularity :

1) ‘Danpyung’ in its contents, succeeds to the character of ‘comments on current literature’ which continued until those days and, in its form, is transfigured into a shorter form under the influence of Japanese ‘Danpyung’.

2) ‘Danpyung’ starts with the aim to make familiar the relation between popular readers and literary specialists, and to make both harmonious.

3) ‘Danpyung’ is tried to revive the literary world of those days, which the literary men grasp to be confusing, insecure and low-graded.

Key Words : ‘Danpyung’ (short reviews), popularity, bibliographical aspects, journal literary columns, literary criticism, Japanese ‘Danpyung’, popular readers, authors of ‘Danpyung’

■ 논문접수 : 2012년 3월 15일

■ 심사완료 : 2012년 3월 31일

■ 게재확정 : 2012년 4월 10일